

라파랭 프랑스 총리 주최 만찬답사

존경하는 라파랭 총리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시고,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프랑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거리의 건물이나 조형물 하나하나에서 높은 예술혼과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소르본느 대학생들도 참 활기차 보였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왜 그토록 프랑스에 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는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세계에 전파한 발신지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국민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대혁명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운 혈맹이자 독재에 항거하던 우리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친구의 나라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에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프랑스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사와 우의의 뜻을 전합니다.

총리 각하,

나는 이번에 각하를 처음 뵙지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각하의 저서 제목인 「우리는 모두 지방출신이다」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의미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각하께서 지방분권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시듯 우리도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혁신, 사회통합 증진 등 각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여러 조치들도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양국은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총리 각하,

올해 두 나라간 교역은 작년에 비해 25% 이상 증가해서 5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러한 교역과 투자의 증진은 물론 과학기술 분야와 중소기업간 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이, 곧 수교 120년을 맞는 우리 두 나라는 더욱 가까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라파랭 총리 각하의 건강과 프랑스의 무궁한 번영,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